

11/30(화) 욱기 묵상 23

욱기 14:1-22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욱기 14장은 욱이 세 친구들의 변론을 듣고 대답하는 욱과 친구들 사이의 대화에 있어 첫번째 사이클의 욱의 마지막 변론 장에 해당합니다. 욱기 14장은 하나님을 향한 변론에 해당하는 장으로서 인간의 연약함과 삶의 허무성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동경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삶의 무상성

욱기 14장에서 욱은 여러가지 비유를 많이 사용하면서 인생의 허무와 한계를 고백하게 됩니다. 먼저 욱은 인생을 꽃과 그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1-2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꽃은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향기롭지만 꽃의 수명은 그림자와 같이 매우 짧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이 한 때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허무와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여인 즉 사람에게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 우리 인생은 행복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또 여러가지 원인 때문에 걱정도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는 가족관계의 문제 등등이 우리를 평생 괴롭히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평안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이러한 삶에서 한 가지 이상의 걱정거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욱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믿는 신자라고 해서 이러한 인생의 걱정거리에서 우리의 삶을 면제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인생은 나무보다도 못합니다(7절,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인간의 죽음은 숙명적이지만 나무는 그 기둥이 도끼에 찍힌다 할지라도 남은 기둥에서 새순이 돋고 연한 가지가 다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8-9절,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끝으로 인생의 허무를 가지고 욱은 바다의 물이 줄어들고 강물의 마름으로도 비유하게 됩니다(11절,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욱은 이러한 인생의 허무와 한계를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간구하는데 그것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달라는 고백입니다(6절, **“그에게서 눈을 돌리며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욱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안 그래도 허무하고 짧은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까지 겹친다면 인생은 더 괴롭고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욱의 바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신다면 인간은 과연 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빙산의 일각)만 아니라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더 큰 영역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세심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시 121:1-8,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부활을 소망

욱은 고난을 탄식하면서 차라리 죽음을 소원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스올의 자리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가 스올의 자리를 소원하는 것은 무작정 죽고 싶거나

또는 자살을 염두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땅에서 자신이 겪는 고난이 너무 크다는 사실과 함께 그것이 그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13-14절, “주는 나를 스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또 읊이 자꾸 스울의 자리 즉 죽음을 소원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15절,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록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도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인생의 허상이 아니라 삶의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제 인용했던 글과 같이 “인생의 문제는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참된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비로서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또 그동안 허상을 쫓던 인생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씨에스 루이스의 말처럼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넘어선 존재와 세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합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겪는 불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의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이상 이 땅에서 처럼 신음하고 고통하는 날은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위로와 영원한 소망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뉴잉글랜드 지역의 교회를 위한 기도:** 청교도의 신앙으로 시작된 뉴잉글랜드 지역의 미국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각성으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19의 시기를 통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교회가 이 땅을 위한 복음과 사랑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또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과 이민자들의 참된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는 미국 교회가 되게 하소서.
- 3. 구역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브리스톨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교육부서를 위한 기도:** 우리교회에 속한 교육 부서를 위해 중보합니다. 오늘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